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6.30(금) ~ 2023.07.06(목)

제공일시 2023 07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6.30(금) ~ 2023.07.06(목)

제공일시 2023 07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EU, PFAS 퇴출 예고... K반도체 직격탄 우려

- 유럽·미국에서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53곳인 것으로 2일 확인됐음
- 특히 반도체 등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을 다루는 곳이 많았는데, SK 계열의 에스케이하이닉스시스템 아이씨, 에스케이쇼와덴코, 키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DB하이텍 등 다수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회사가 이름을 올렸음
- 국내 반도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직접적으로 PFAS 사용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반도체용 불소계 화학제품을 공급하는 다이킨코리아 등 일본계 협력업체들이 이름을 올렸음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특성상 갑작스러운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의 핵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대체 물질 연구를 시작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국민일보, 2023.07.03) 신준설 기자

### 2. EU, 생산자들이 섬유 폐기물 비용 지불하도록 신규 법안 규칙 발표

- EU는 섬유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지원하고 섬유제품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에게 맡기는 신규 규칙을 발표했음
- EU위원회의 제안에는 포장, 배터리, 전기 및 전자장비 폐기물 관리와 유사한 EPR(생산자책임제도)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됨
- 이번 제안은 생산자가 섬유폐기물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섬유의 환경성과에 따른 계획 지불 금액을 조정해야 함 섬유폐기물의 다른 국가로의 불법 수출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음

(ESGToday, 2023.07.05) Mark Segal 기자

### 3. 英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 해운·폐기물산업으로 적용 확대

- 영국이 제조업·운송업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탄소배출량 상한선을 낮추고, 해운·폐기물 산업까지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에 나섰다
- 3일(현지 시각) 영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하여 목표는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음
- 기존에는 전력·항공 산업 등만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을 받았다면, 오는 2026년부터는 해운업, 2028년에는 폐기물 산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 영국 정부는 산업계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2027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음

(더난은미래, 2023.07.04) 김수연 기자

## 1. 2035년 5,000억불 SMR, 정부·산업계 원팀 구축

-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소형모듈원전(SMR) 시장 선도를 위해,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원팀을 구성함 4일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 참여 기관간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음
- 이번에 출범한 SMR 얼라이언스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너지경제연구원·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11곳과 SK(주), GS에너지,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31개 기업 등 총 42개 기관이 참여함
- 얼라이언스에서는 소형모듈원전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개발 워킹그룹’에서 소형모듈원전 활용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정비 워킹그룹’은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음

(에너지플랫폼뉴스, 2023.07.04) 김신 기자

## 2. 그린수소 국산화 본격 추진…한전, 경제성 검토 완료

- 정부가 그린수소 에너지의 국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비용 효율적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임
-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비용 효율적 국내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음
- 보고서는 계통보강비용 회피 및 시장판매 목적의 그린수소 생산 경제성을 분석한 내용으로,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이 계통보강 비용을 낮추고 비용 효율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마쳐, 정부의 수소발전 확대 정책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해당 보고서 원문은 한전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될만한 영업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상태임 한전은 보고서를 검토해, 추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임

(뉴스시스, 2023.07.06) 임소현 기자

## 3. ‘한화토탈·LG화학·SK지오’, 차세대 블루오션 ‘POE 시장’ 참전

- 화학업계가 차세대 태양광 소재인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음
- 해외기업 중에서는 미국 다우케미칼, 일본 미쯔이 등이 POE 시장에 진출. 국내에서는 LG화학,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에너지스가 POE를 적극 육성 중임
- 국내 기업들은 범용 석유화학 제품보다는 중국과의 기술 우위에 있는 고부가 제품을 통해 수익성을 키우려 POE 시장에 뛰어들었음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화학업계가 POE에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함

(브릿지경제, 2023.07.04) 도수화 기자

## 1. 에스테로더, 책임있는 매장 디자인 프레임워크 출시

- 에스테로더의 신규 '책임있는 매장 디자인 프로그램(Responsible Store Design Program)'을 발표하면서, 관련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음
- 에스테로더는 스코프1,2 배출 50% 감소, 스코프3 배출을 2030년까지 60% 가량 감축하고, 2025년까지 포장재 재활용 비율 25% 감소, 2030년 전까지 포장재에 사용되는 버진플라스틱을 50% 이하로 낮춘다고 밝혔음
- 에스테로더는 2020년 모든 회사 매장에 대한 신규 건설 및 리노베이션에 대한 '그린 빌딩 표준'을 발표했다고도 밝혔음
- 새로운 매장 기준에는 폐기물 관리 계획, 에너지 효율 장비 설치, 매장 재료의 책임있는 조달, 신규 아크릴 재료가 없는 설계 등이 포함되고, 모든 독립형 매장은 에스테로더의 가상 전력구매(V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계획임

(ESGToday, 2023.07.03) Mark Segal 기자

## 2. 이탈리아 에니, 자산 매각으로 석유 노출 줄인다

- 이탈리아 메이저 정유사인 에니가 자산 매각을 통해 천연가스와 석유 노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에니 CEO가 밝혔음
- 에니는 2023년부터 2026년 사이에 자산 매각과 인수 사이의 균형을 통해 10억유로의 순이익을 창출할 계획임
- 에니는 지난달 뱀퉀 에너지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콩고에서 석유 자산 일부를 매각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인수합병으로 에니의 평균 탄소강도가 감소할 전망이다
- 에니는 올해 말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 기후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임 에니는 재생에너지 개발, 바이오 연료 사업을 위한 원료 생산을 위해 농업허브 설립을 포함, 아프리카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함

(Reuters, 2023.07.04) Francesca Landini 기자

## 3. 네슬레, 탄소상쇄 관행 깬다...실배출량 감축에 1조원 투자

- 네슬레(Nestle)가 탄소 상쇄(Carbon offset) 방식이 아닌, 브랜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음
- 3일(현지 시각) 네슬레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탄소를 상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공급망과 운영에서 탄소배출량 감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 이런 변화는 지난 2월 환경단체들의 비판에서 시작됐는데, 기업들의 탄소 상쇄 활동이 정작 가치사슬 내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임
- 네슬레는 2050년까지 낙농업 분야에서 100% 재생 가능한 전기로 전환하는 기존 목표와 더불어, 킷캣(Kitkat), 페리에(perrier) 등 2000여 개 보유 브랜드에서도 가치사슬 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특히, 토양 건강 개선, 목축 방식 개선, 화학비료 사용 금지, 농지의 탄소 저장능력 확대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12억달러(약 1조56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음

(더나은미래, 2023.07.06) 황원규 기자

### 1. 삼성SDI, 배터리업계 최초 '탄소발자국' 인증

- 삼성SDI가 2차전지 업계 최초로,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로부터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음
-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4.8Ah(암페어아워) 원통형 배터리 셀과 49.5Ah 각형 배터리 모듈로, 해당 제품들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주요 제품임
- 측정은 글로벌 탄소 배출량 산정표준인 PAS 2050과 배터리에 대한 유럽연합(EU) 제품 환경 발자국 세부 지침인 EU PEFCRs에 기반했음
- 삼성SDI는 앞으로도 탄소 배출량 측정에 대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 주요 제품들에 대한 카본 트러스트 탄소발자국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한국경제, 2023.07.03) 안옥희 기자

### 2. SK에코플랜트, 가상발전소 기반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사업 본격 진출

- SK에코플랜트가 3일 SK에코플랜트는 제주도 내 91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협약을 맺고, 50M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의 전력거래 대행(전력중개) 사업에 나서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사업에 본격 진출함
-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전략적 투자로 에너지플랫폼 사업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3분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기반 입찰 플랫폼 '파워젠(Power ZEN)'을 런칭할 계획임
- 또, 제주도 내 확보한 재생에너지 발전자원을 기반으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제주도 전력시장 제도개선 시범사업에도 참여하여 실시간 전력시장과 15분 단위의 예비력 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함께 운영할 예정임
- SK에코플랜트는 향후 재생에너지 모집 자원을 전국으로 확대, 정확한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가상발전소 시장 확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임

(이투데이, 2023.07.03) 문현호 기자

### 3. `K-배터리`의 힘...LG엔솔·스텔란티스, 캐나다서 `15조원` 보조금 받는다

-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합작사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데 성공했음
- 양사는 캐나다 정부와의 보조금 협상이 난항을 겪자, 공장 건설을 중단한 바 있는데, '건설 중단'이라는 초강수에, 캐나다 정부는 15조원(150억캐나다달러)이라는 파격적인 수준의 보조금을 약속했음
-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지난 5월 15일부로 중단했던 배터리 모듈 공장 건설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으며, 당초 목표인 2024년 공장 가동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에 양사가 받게될 보조금 15조원은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웠을 경우, IRA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반영한 금액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옴

(디지털타임즈, 2023.07.06) 박한나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6.30(금) ~ 2023.07.06(목)

제공일시 2023 07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미국과 EU 청정수소 시장 성장의 조건...물 문제와 파이프라인 구축 해결돼야

(인팩트는, 2023.07.06) 송준호 기자

- 청정수소는 탄소중립 전략 중 에너지 전환 부문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년 넷제로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청정수소 예상 공급량의 약 3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음.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IRENA)는 현재 생산되는 청정수소는 100만 톤이 되지 않는데, 2050년까지 약 5억 톤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청정수소 시장 발전에 가장 큰 문제는 공급임.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발간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솔루션’ 리포트에 따르면, 수소 프로젝트 관련 투자발표는 유럽, 중동, 미국, 중국, 호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약 600개의 생산 프로젝트 중 상위 25개 프로젝트가 전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황임
- 주요 생산지인 유럽과 미국은 청정 수소의 생산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음. 미국은 수소 생산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고, 유럽은 주요 생산지인 남부로부터 소비지인 북부 지역으로 수소를 이동할 파이프라인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 미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5000만 톤의 청정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한 바 있음 최근 100페이지가 넘는 청정수소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수소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에 최대 1000억 달러(약 130조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지역에 최대 70억 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바이든 정부가 청정수소를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료는 물임. 수소는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되는데, 이를 위해 하나의 허브에만 수백만 갤런의 물이 필요함
- 에너지 컨설팅 기업 라이스터드 에너지(Rystad Energy)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가 선정한 수소 허브의 최종 후보에 오른 33개의 프로젝트 중 9개가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자리 잡고있음. 물 부족 지역에는 남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캔자스, 뉴멕시코, 텍사스 등이 포함됨
- 해당 지역들은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서 용수를 만드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지어 부족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가뭄으로 용수 공급이 어려운 텍사스주 남부의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항구도시도 수소 허브 프로젝트에 선정되면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지을 예정임
- 해수 담수화는 수소 허브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 해수 담수화는 생물 다양성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함. 미국 텍사스 A&M 코퍼스 크리스티 대학의 폴 몬타냐 석좌교수는 “담수화로 인해 발생한 염수가 코퍼스 크리스티만으로 흘러들면, 새우와 대서양꼬마민어와 같은 해산물 어종을 죽여서 어업에 연간 600만 달러(약 78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이 문제로 인해 에너지 및 건설,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도 있음.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포세이돈 플랜트인데, 건설에만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이 들었으며, 취수관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염수 피해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데 2억7500만 달러(약 3574억원)의 추가 비용이 더 필요했음

- 유럽연합도 청정수소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EU는 수소가 2050년까지 에너지 믹스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22년에 수소 및 가스 시장 탈탄소화 패키지와 같은 기본법을 마련하고 높은 목표치를 세우고 있음. EU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수소 생산량을 1000만 톤, 수입량을 1000만 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음
- 유럽은 청정수소의 주요 생산지가 남부이고 수요지는 북부인 특징이 있기에, 남부에서 생산한 수소를 북부로 운송할 수소 네트워크가 주요 과제로 제시됨
- 이에 따라 2022년 말에 프랑스와 스페인은 200만 톤의 수소를 옮길 수 있는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하기로 합의를 진행했고 독일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음. 또 노르웨이에서 독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앞선 프로젝트와 비슷한 규모의 파이프라인이 곧 건설될 예정임
- 문제는 이런 대규모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서류상 합의는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투자와 착공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업계 관계자들은 EU이사회와 의회가 협상 중인 수소 및 가스 시장 탈탄소화 패키지가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음
- 유럽연합은 수소 생산,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관련된 법률만 최소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